

DREAMLINE

드림라인주식회사

드림라인(주)는 전국적인 링형 망구성의 광통신 기간망 보유, 국내 최초로 공중망에서 B-ISDN (ATM over SONET) 서비스 제공, HFC 기반 케이블모뎀을 통한 전국적인 상용화 서비스 1999년내 실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원공과 케를 같이하여 2005년내 전국 방방곡곡 8개 링형 망구조 확장 등 통신망 부문에 있어서는 21세기 최고의 광통신망 사업자로 발돋움한다는 야심찬 꿈을 키워가고 있다.

회사 개요

드림라인주식회사(Dreamline Corporation)는 제일제당 10%, 한국도로공사 9.9%의 양대주주를 축으로 157개의 주주사들이 자본금 600억원으로, 1997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국 고속도로 주변 광통신망을 백본망으로 이용하여, 광통신망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고속 온라인서비스 등 고수익 광통신 서비스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이다.

주요 고객은 온세통신하나로통신 등 유선전화사업자, SK Telecom신세기통신 등 이동전화사업자, HITSDS 등 시스템통합기업, 나우콤Netsgo아이네트 등 온라인통신사업자 등 대형 통신망 수요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 통신수요와 더불어,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는 전국 약 800백만 중계유선방송 가

입자를 대상으로 케이블모뎀을 이용, 현재보다 10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광대역 온라인 서비스를 연내로 상용화할 예정이어서 명실상부한 21세기 초고속 광통신 사업자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

드림라인 핵심역량(Core Competence)

국내 최고 신뢰성을 자랑하는 전국적인 링형 망구성의 광통신 기간망 보유, 국내 최초로 공중망에서 B-ISDN (ATM over SONET) 서비스 제공, HFC 기반 케이블모뎀을 통한 전국적인 상용화 서비스 1999년내 실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완공과 케를 같이하여 2005년내 전국 방방곡곡 8개 링형 망구조 확장 등 통신망 부문에 있어서는 21세기 최고의 광통신망 사업자로 부각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동시에 End-to-End Fiber Network 통신망 구성으로 인해 기존사업자들이 legacy network을 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측면은 효과적인 통신망 구성으로 원가 상승 요인이 적게하여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측면에서도 경쟁력있는 사업자로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편, 고품질저원가 통신서비스를 위한 기본 인프라 측면이외에도 드림라인은 관련 주주회사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능력 측면에서도 잠재적 경쟁우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제일제당의 멀티미디어 유관 투자 사업, 즉 스피버그 영화사 SKG Dreamworks, 음악전문 CATV m net, 극장 선진화를 주도하는 CGV 강변 극장, 제일투자신탁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서비스 DreamMart 등 고품질의 멀티미디어콘텐츠가 드림라인 광통신망과 연계될 예정이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에는 그야말로 드림라인은 명실상부한 생활속의 정보화를 실현해 나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사업자가 될 것이다.

정보대국 시범 사업자로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멀티미디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드림라인은 초고속 온라인 서비스 사업과 21세기 정보대국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1세기 정보대국 사업이란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드림라인은 2600Km 광통신망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국 약 800만 중계유선방송가입자를 대상으로 HFC(Hybrid Fiber Coaxial) 망을 통한 케이블모뎀 기술을 사용, 가입자망 고도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아날로그 모뎀보다 10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텍스트 및 그래픽 위주의 단순 정보제공 차원의 능가하여, 사용자의 자율적 선택의지가 증시되는 방향하에 교육, 오락,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분야에서 능동적인 멀티미디어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드림라인 비전 및 전략

기업 비전 전체

국내 최고의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과 선진 통신문화 창조를 통해 21세기 고도정보사회 주역이 될 초고속 멀티미디어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Synergy

고속도로 주변에 최고의 안정성, 신뢰성 및 확장성을 갖춘 한국도로공사의 초고속 광통신망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제일제당의 마케팅 및 경영관리 능력의 결합을 축으로, 총 167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Service

고품질저원가의 차별화된 통신망을 기반으로 통신방송, 음성데이터, 오락정보 등의 종합적인 번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Scenario

국민의 생활 속에서 21세기형 선진 통신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신Millenium 시대의 핵심인 고도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종합통신사업자, 초고속 멀티미디어 기업으로 거듭 내려 합니다.

전용회선 서비스 전략

대용량고품질 광통신망(End-to-end SONET Network) 기반의 전용회선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기술과 품질, 수익성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Carriers Carrier

유선전화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시스템통합업체 및 대용량 통신수요 기업들에게 2.5Gbps SONET 기반의 광통신망 전용회선 임대 서비스를 기반으로,

Cream Skimming

고품질 통신망을 필요로 하는 고수익 니치마켓 창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통신망 아웃소싱 확산에 따른 기업 통신망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Core Technology

국내 최초로 ATM 백본망을 구성하여 B-ISDN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확산에 따른 IP 기반 통신망 및 차세대 전송 기술 DWDM 등 선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Competitive Advantage

국내 최고의 통신망 운영능력 및 수익성, 소수 정

예 인력구조, 신설 통신망적극적인 마케팅 파워효율적인 관리능력 등 기존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전용회선 서비스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온라인 서비스 전략

드림라인의 광통신 백본망과 케이블TV망과의 결합을 통해 전국의 모든 가정에 초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21세기 꿈의 통신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Win-Win Business Model

전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투자 위험부담 최소화 사업성 극대화 실현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사업모델이 기반하에,

Wherever Whenever Whoever

'99년 3월 현재 서울 은평, 부산 김해, 경기 과천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케이블모뎀 이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확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손쉽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Worldwide Multimedia

문자 및 음성 등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서서 오락화상회의주문형비디오원격교육원격진료전자상거래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돋움할 것입니다. 